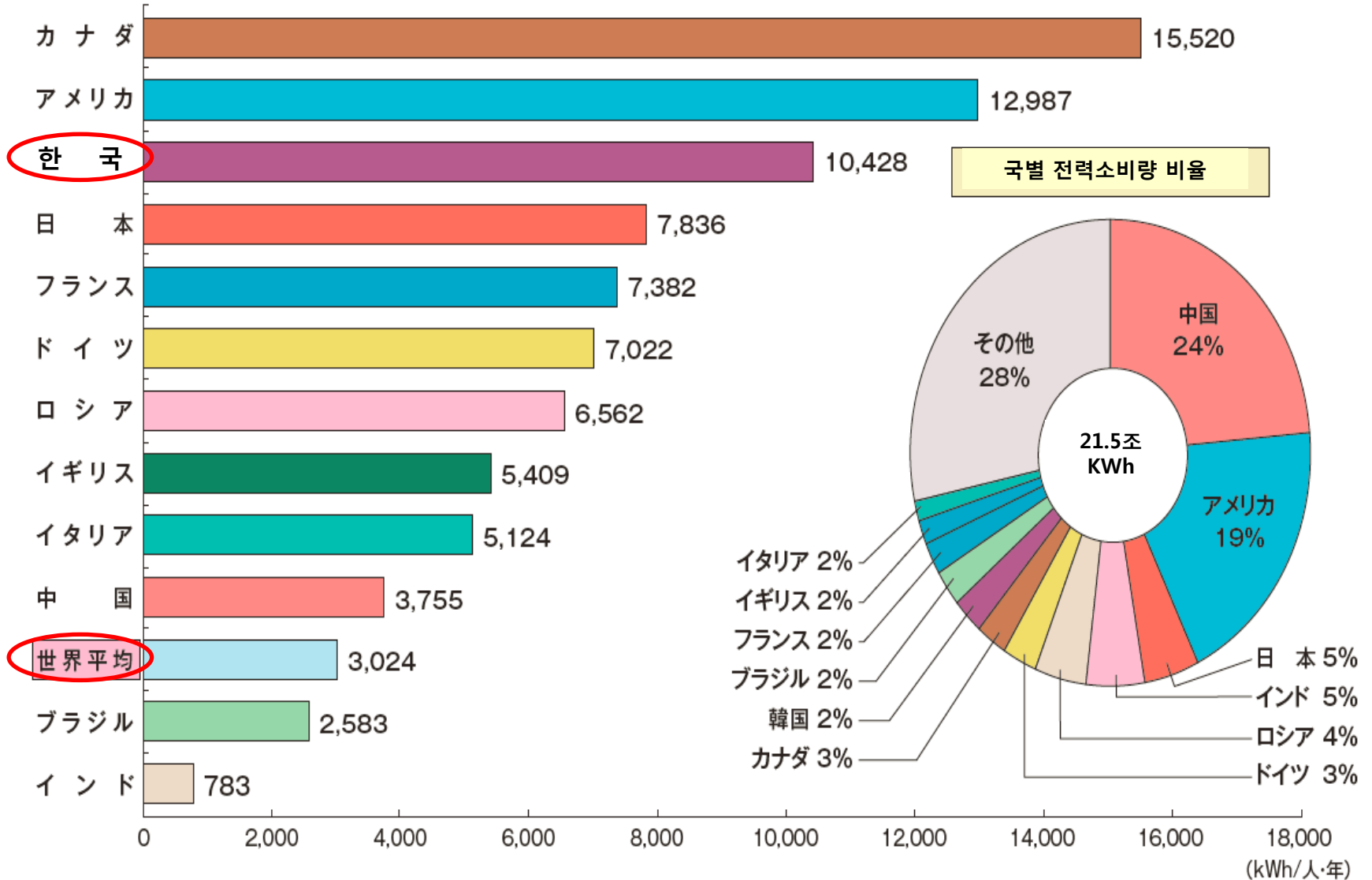


주요국 1인당 전력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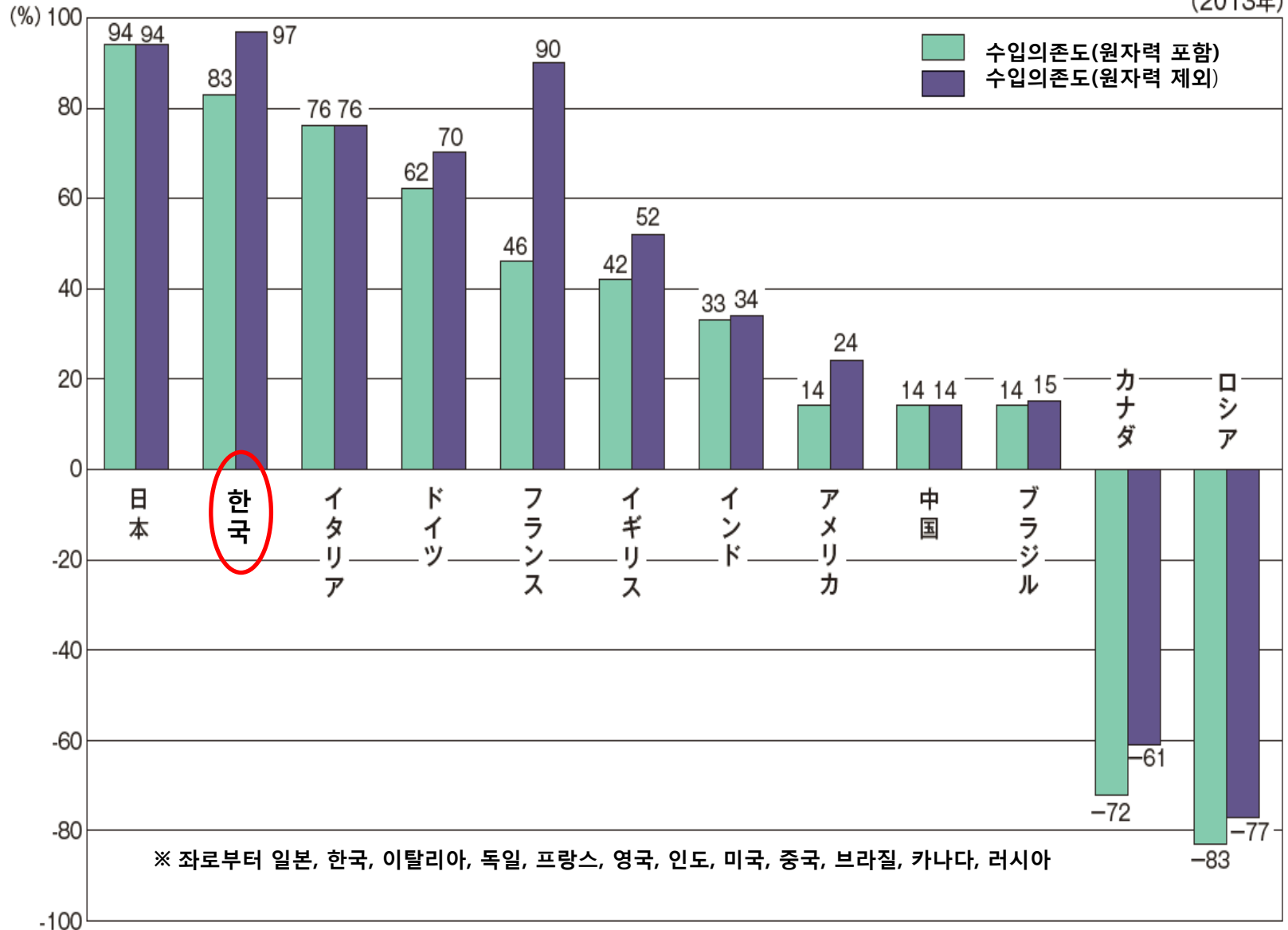
(2013년)



※ 1인 전력 소비량: 위로부터 캐나다, 미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탈리아, 중국, 세계평균, 브라질, 인도
 국별 전력소비량 비율: 시계방향 중국, 미국, 일본, 인도, 러시아, 독일, 캐나다, 한국, 브라질,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기타

주요국 에너지 수입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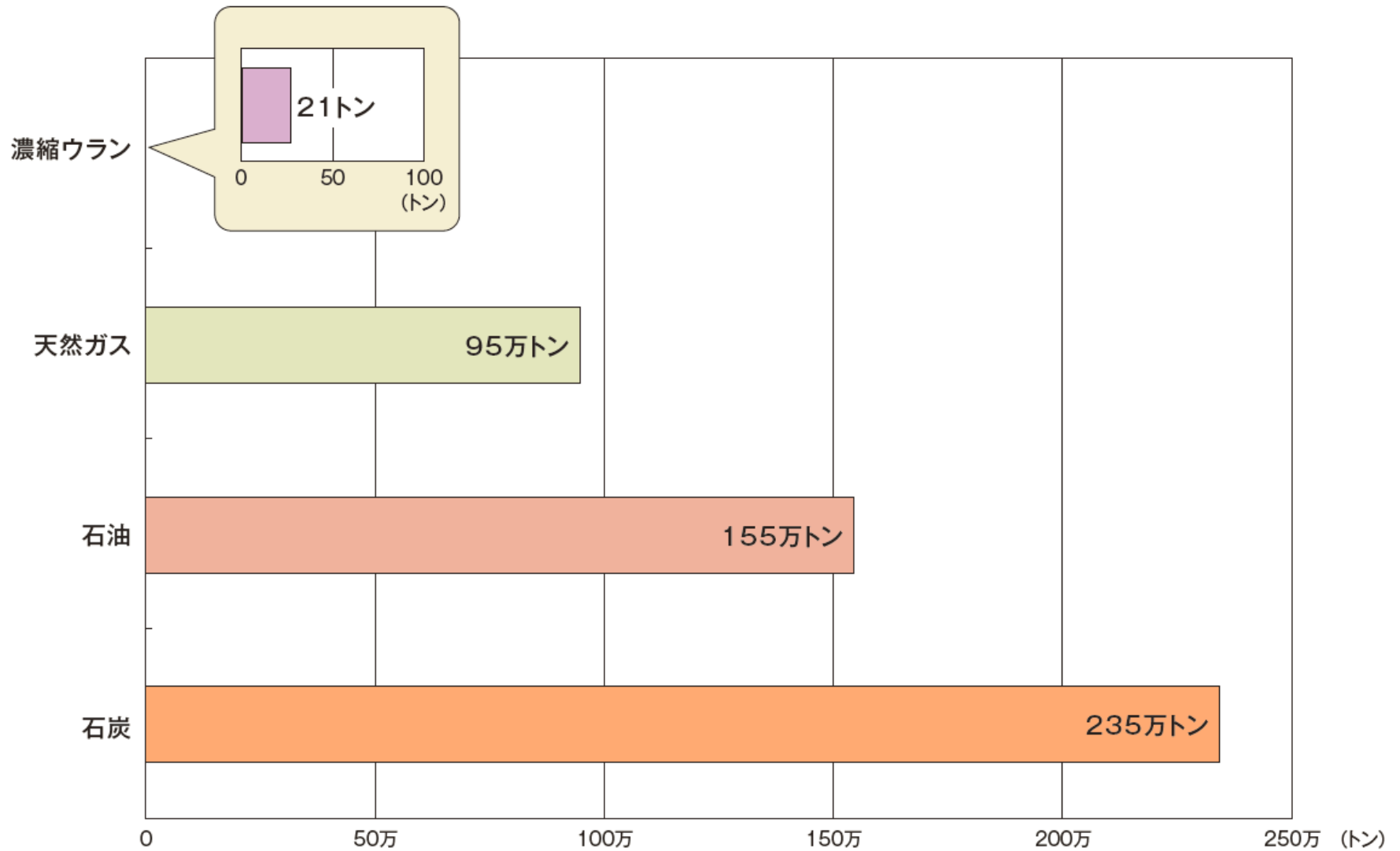
(2013년)



※ 좌로부터 일본, 한국,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미국, 중국, 브라질, 캐나다, 러시아

※ 하향 그래프는 수출하는 경우를 나타냄

연료별 100만KW 발전소 1년간 운전시 필요량



※ 위로부터 농축우라늄, 천연가스, 석유, 석탄 (10,000 tons = 100,000 tons)

후쿠시마 원전 발전정지에 따른 국부 유출

공공인프라의 연도별 신규투자필요액		
	신규투자 필요액(조엔)	수량
공공시설(국가)	0.4	49229千㎡
공공시설 (지방, 행정시설)	0.6	71416千㎡
공공시설 (지방, 학교)	1.5	229951千㎡
공공시설 (지방, 공영주택)	0.9	157003千㎡
공공시설 (지방, 기타)	1.3	175120千㎡
도로(포장)	1.0	約3100km
교량	0.6	79876千㎡
수도(관로)	1.7	653618km
공공하수도(관로)	1.1	459351km
계	8.9	

(注) 各官統計による。道路(舗装)面積は国交省社会資本整備審議会社会資本メンテナンス部会資料に記載されている数値。橋梁面積は道路統計の全国延長と、大都市部～中山間地域を平均的に有する市の橋梁面積対橋長比の積

발전정지에 따른 국부 유출 :
3.7조엔/년(2014년)

천연가스, 중유 등의
연료수입비 증가

2016.5.12. 닛케이신문 조간

2015.4.19. 산케이뉴스 '국부유출 3.7조엔...원전정지로 손실이
커가는 일본경제'

2015년 발생량을 기준으로, 국내 원자력 발전을 석탄과 LNG 발전으로 대체시 발생 효과

전력 판매 단가: 28% 증가, 온실가스 배출: 49% 증가, 추가 부담 비용: 약12.6조원/년

2015발전량 (‘2016,한국원자력산업회의) (522,351GWh)	522,351,000,000KWh	■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의 판매단가	
○ 판매단가(2013,한전)		석탄발전 판매단가	12,327,483,600,000 원/KWh
석유	222 원/KWh	LNG 발전 판매단가	22,461,093,000,000 원/KWh
LNG	215 원/KWh	원자력 발전 판매단가	6,111,506,700,000 원/KWh
석탄	59 원/KWh	소계	40,900,083,300,000 원/KWh
원자력	39 원/KWh		
○ 온실가스 배출량(2014,한전)		■ 원자력을 석탄과 LNG로 대체시 (석탄:LNG=2:1)	*현재 발전 비율 적용
석유	782g/KWh	석탄발전 판매단가	18,491,225,400,000 원/KWh
LNG	549g/KWh	LNG 발전 판매단가	33,691,639,500,000 원/KWh
석탄	991g/KWh	소계	52,182,864,900,000 원/KWh
원자력	10g/KWh	판매단가 추가 비용	11,282,781,600,000 원/KWh
		판매단가 증가비율(%)	28%
○ 에너지원별 발전량 (2016,한국원자력산업회의)			
석탄	40%	■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가스	20%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207,059,936,400,000 g/KWh
원자력	30%	LNG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57,354,139,800,000 g/KWh
		원자력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1,567,053,000,000 g/KWh
○ 이산화탄소 거래 비용	10,000 원/톤	소계	265,981,129,200,000
		■ 원자력을 석탄과 LNG로 대체시	
		석탄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310,589,904,600,000 g/KWh
		LNG발전 온실가스 배출량	86,031,209,700,000 g/KWh
		소계	396,621,114,300,000 g/KWh
		온실가스 추가 발생량	130,639,985,100,000 g/KWh
		온실가스 추가 발생 비율(%)	49%
		온실가스 추가 발생 부담 비용	1,306,399,851,000 원
		■ 판매단가 및 온실가스추가 부담 비용	12,589,181,451,000 원